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nia.com/mem/na
 nnaum

법공양 페이지

모든것 자기로 보면 무공한 자비 나와

15면에서 계속

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대인공포증도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의 사람들처럼 배우고 놀고 친구 만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요. 죄송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 자기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인데 산 귀신, 죽은 귀신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모든 게 둘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보든지 귀신을 보든지 선신을 보든지 놀라지 말고 항상 둘이 아닌 걸로 알고 어떠한 귀신이 나타나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나를 테스트 해보려고 환상으로 내보내는 작용인 줄 아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깐 그 자리에도 도로 놔 버린다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네 의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속지마라. 그렇게 나오려면 네 주인공에다 모두 일임을 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 나아요. 모든 것이 딴 데서 온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건데 딴 데서 귀신이 와서 그러는 줄로만 아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가 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육체 안에, 이 마음 안에 영가가 셋 들어가고 있고 들도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도 딴 데서 들어온 게 없이 '내 의식 속에서 다 나오는 거로구나' 하고선 모든 걸 속지 말고 그냥 주인공에다 일임하고 '너만이 이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는 그냥 모두 거기가 다 맡겨놓으면 다 편안할 것을,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내 집을 지키는 주인을 완벽하게 세워놓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근본 뿌리인 주인공을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저 나무를 보니까 잘랐든지 못났든지 다 뿌리에서 싹을 안고 있구나. 그래서 싹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뿌리아! 내가 만든 모습인 이 싹이 이렇게 나빠졌으니 좋게 해.' 라고 관한다면 뿌리가 알아듣고 '그래! 내가 나를 잊지 않고 알고 있구나' 하고 좋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속에 있는 생명들이 다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관을 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믿고 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광대하고 무뎠던 모범을, 마음의 모범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마음에는 어떠한 거든지 녹여서 재생시킬 수 있는 용광로가 있다. 이 내 마음의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스스로 재생이 돼서 나온다. 그러나 그 용광로에다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무조건 갖다 넣기만 하라는 겁니다.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고 정갈하지 이진 세계 생애에 광대무변하고, 조상과 자식들을 다 건지는 공부, 나중에 가서 공부를 더하면 세상을 다 건질 수 있는 공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안 죽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죽는 사람, 죽 멸하는 사람이 있어야 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동글게 돌아가고 동글게 돌아가기 때문에 진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여러분의 법입니다.

그리고 대인공포증이라고 하셨나요? 그것도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세요. 마음 지리는 공해서 어느 것도 붙을 것이 없으니 대인공포증 또한 본래 공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올 때마다 '주인공, 당신만이 자신감 있게 상대를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세요. 어떠한 거든지 수없는 과거생을 살아오면서 모두 내가 일찍이켜 놓은 것이니 현실에 나오는 대로 주인공을 믿고 관한다면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세요.

기독교 아가씨와 결혼후 갈등
문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을지요.

달리 물을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찾아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착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절에 가서 절도 올리고 밥도 먹곤 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는 훨씬 정도 가고 나중에 종교를 가지면 불교를 선택해야지 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연인지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지난해에 교회 다니는 아가씨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쪽 집안의 심한 반대로 인해서 한 번 헤어졌다가 만나는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다니는 조건하에서 지난해에 결혼을 했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막상 교회를 안 나가려니 아내와 말다툼만 할 것 같고 또 나가자니 할머니께서 노발대발이십니다. 이유인즉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애석한 마음에 다음날 법회가 있어 불전함에 아버지 어머니 영가 이름을 적어 각각 십만 원씩을 불전함에 넣었습니다. 안타까운 제 마음을 보고싶은 부모님께 전할 길은 그 길 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저의 부모님이 제 마음을 받으셨는지요? 음력으로 유월 초하루가 아버지 제사, 유월 스무닷새가 어머니 제사거든요. 큰스님께 여쭙어 봅니다.

답 아침 첫승에 부모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고, 나라의 은혜, 만물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은혜 갖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 주시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낳아서 기르느라고 짐수

여러 종교 성인들이 대신해서 먹고자고 깨달아 줄 수 있나요 이 도리를 터득 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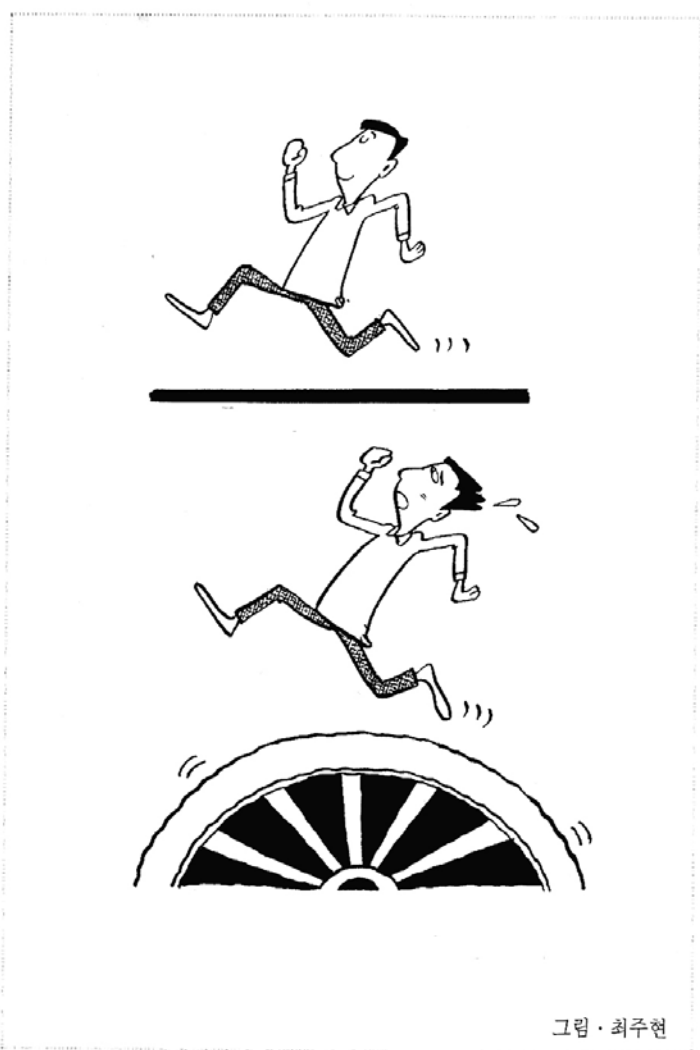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싸운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진 않습니다. 구하는 바는 무슨 종교든 같고 싶습니다. 사람이든 자비든 말입니다. 정작 불교에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도 답답한 심정으로 사연을 띄웁니다. 부디 저의 사연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 기독교를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출현을 했으니까 나부터 있는 겁니다. 나부터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 주체는 내게 있는 겁니다. 나 이외의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기독교를 믿더라도 주는 나의 근본이요, 마음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그 근본으로 인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바로 당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불교(佛敎)'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령 있는 것은 불(佛)이요, '교(敎)'는 전체 돌아가는 걸

시키고 싶은 것 안 잡으시고, 배우고 싶은 것 못 배우시고 때로는 허덕허덕 갖은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느라고 부모님은 이 마음도리를 배우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살아 생전에 나를 기르시느라 어느 때는 다투기도 하셨을 것이고 육식 아닌 육식도 부리셨을 것이고 마음에 없는 일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떤 이유가 되든 그런 일들로 인해 많은 빚을 지셨으니 그것을 갚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상은 본래 가설이 돼 있다고.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그것을 남게 지혜롭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가



그림·최주현

팔 심은 데 팔 난다는 격으로요. 그러니까 자기 씨를 심어서 싹이 난 것이니까 그 종자가 또 열리게 할 수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싹을 하나도 얼마만큼 귀중하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근본에 내가 탄생한 자리요, 나를 형성시킨 자리요, 또는 우리 부모들도 형성시키는 데 그 에너지가 배출되는 장소요 또는 아래로는 후손들에게 햇빛을 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시기를 내 부모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만물하고도 우리의 마음하고는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참자기와 자기가, 즉 말하자면 참자기는 부(父)라고 하고 이 몸은 자(子)라고 합니다. 부와 자가 통하면 어느 일체 만물하고도 통합니다. 삶을 극복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이지만 이 도리를 알면, 그리고 모르더라도 내 주인공 내 '주장자'를 쥐고 나

여러분이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만이 귀중한 겁니다. 나부터 귀중한 걸 알고, 나부터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나부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아마 자기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하는 마음도 습관 일 뿐 그 본성은 공한 것이 아닙니까?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기대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러한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주인공에 놓으세요. 그리고 주인공이 가장 잘 선택하게 할 수 있다고 간절하게 믿으세요. 자기 진로에 의문이 생긴다면 그것도 한번 맡겨 보세요. 진정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근본 뿌리에 관해 보세요. 모든 문제는 자기의 근본 뿌리를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기의 근본이 없다면 종교라는 것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먼저 자기를 이끌어가고, 자기를 운전하고, 자기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기의 원동력을, 자기 몸통이를 이끌어 가는 자기 주인을 진짜로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근본에다 맡기고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 고치고 싶습니다

문 저는 항상 불안합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뭐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일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빨리 끝내놓고 다른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맡겨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책에서 읽었는데 육심을 내서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너무나 급합니다. 급한 성격을 차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모두 차분하고 꼼꼼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명상도 조금 배워 보았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디. 저의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저를 너무 자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오직 내가 있기 때문에 나 한 군데서 모두가 나가지 내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군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주도 있고 세상도 있고 과거·현재·미래도 있고, 생사도 있고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나한테 모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이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고정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만나거나 가고 오거나 모든 것이 한번 생각해서 대답해 보세요. 고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게 없다는 것을 알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마음으로 결정짓는다면 모든 게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적이 급한 것도 고정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나는 어떡하나 이리저리 마세요. 이 공부는 급하든 느리든 다 불태워 버리는 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악도 놓고 선도 놓고 긴 것도 놓고 짧은 것도 놓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솟아 나온다. 자기 참자기가 솟아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여유하게 삶을 살 수 있겠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참 자기인 주인공을 믿을 수가 없으니깐 불안하고 쫓기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다 놓을 수만 있다면 바퀴를 쓸 수 있는 이치가 있지요. 급하게 서두르는 순간 순간을 주인공에 놓고 스스로 차분하고 침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생각을 내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관하다 보면 급하게끔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차츰차츰 차분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마음은 용광로...무엇이든 녹여서 재생 자기 근본뿌리 믿지 못하니 남에게 의지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을 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체는 모두들 각자의 가슴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당신의 아내 가슴에 있는 거니까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으라고 아내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라도 주체는 너의 가슴에 있으니까, 그 가슴 깊이 들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말고 안으로다가 '주님, 당신만이 낮게 할 수 있고 당신만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관하고 일러주신다면 당신 하나로 인해서 아내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변해갈 겁니다.

영가 부모님께 용돈드려

문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을 십만원씩 드리겠다고 하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가를 끝내놓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꿈을 깬습니다. 꿈에서라도 부모님이 제 용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봐주고 싶었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참을 멍히 있었지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남들처럼 친정 부모님께 용돈 십만원이라도 쥐어드려 봤으면 하는 마음이 평소

에 부모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한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촛불제도 하고 백중도 지내고 초파일에도 등도 밝히고 그러는 겁니다. 위로는 묵은 빛 같고 아래로는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진로선택 놓고 고민 합니다

문 대학 4학년이어서 그런지 앞으로의 진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이 진정 잘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로 인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다들 각자의 신념대로 잘 살아가는데 저는 그분들과는 달리 늘상 남에게 무슨 일든 기대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게 닦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제 스스로의 결정보다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저의 신념이 서 있지 못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되는 공부도 아닌 것 같고 좀 자유롭고 싶을 따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선택이든지 남에게 기대려 하는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처럼 회사 다니고 돈 벌고 가정을 꾸미고 그렇게